



가정통신문

- 1951.09.25 개교
- 54413 김제시 남북2길 25
- ☎(교)546-8392 (행)546-8393
- (홈) <http://www.gimje.hs.kr>
- (앱) <http://sn.jbe.go.kr/jbe723>

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□

학부모님의 가정에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선행교육을 예방하고 선행 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
1. 법 제정 이유

-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,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도 어긋남
- 학교 내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수업 실시,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,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
-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,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.

2. 법 주요내용

-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
- 학교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와 평가 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
-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.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.운영
-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하고, 미 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,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.재정적 제재 부과
-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.선전 금지

- 선행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,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, 교육적 피해는 심각하다 할수 있으며,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

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.

○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

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,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,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.

○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

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(예: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)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.

○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

통계청이 발표(2020.3.10.)한 2019년 초·중·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2024년 8 월 16 일

김 제 고 등 학 교 장 [직인생략]